

국비 확보·튼튼한 조직위 구성 서둘러야



광주세계수영 2년 앞으로

〈하〉 해결 과제 산적

2019년 7월 대회 개최 이전까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우선 대회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 예산 확보와 함께 대회 준비와 운영·관리를 맡게 될 조직위의 탄탄한 구성이 시급하다. 또한, 광주시는 도시 브랜드 홍보를 통해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이 경쟁을 펼치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 유치에 최대한 이끔을 내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같이 광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이 있다면 광주는 또 한번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 확보·스폰서 등 사업비 확보 시급=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찬밥’ 신세였다. 대회 유치 과정에서부터 정부로부터 외면 받았다. 이 때문에 수영대회 유치를 위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 수사로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국제경기 지원법이 있는데도 ‘국비 지원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보이며 정부 예산안에 한 톨도 편성하지 않는 초강수를 두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회 개최 2년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 사업비는 지난 5월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697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사업비는 시설비 582억원, 운영비 1034억원, 예비비 81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482억원이며, 시비는 698억원, 자체 수입 517억원이다. 광주시와 조직위는 지난해 20억원, 올해 4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내년도 국비는 222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대회 당해연도에는 192억원의

지난 정권서 ‘찬밥’...문 정부 들어 예산 확보 기대감 총 사업비 1697억 중 국비 482억...올해 49억 확보 ‘경제효과 상당’ 수영 동호인 마스터즈대회 유치 관건

국비를 지원 받아야 한다. 나머지 국비 확보와 함께 대회 스폰서 유치 등을 통한 자체 수입이 이뤄져야만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처럼 ‘흑자 대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조직위가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튼튼한 조직위 구성해야=광주시와 조직위는 대회 개최 2년을 앞두고 조직위를 확대·개편했다. 조직위 사무국의 조직은 기존 1본부 2부 5팀 35명에서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 3본부 6부 1담당관 17팀 1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각 분야별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80명을 추가로 증원해 조직위 인원은 18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파견 공무원 또한 대회 운영에 대한 전

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포츠·문화를 아우르는 대회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대회 준비와 대내외적 홍보를 비롯한 대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위는 이에 따라 관련 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경기운영과 문화행사, 인력, 숙박, 수송, 미디어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마스터즈대회 참가자 유치가 관건=세계수영대회는 각 나라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경쟁하는 마스터즈대회가 연이어 열린다. 31일간 대회가 열리는 만큼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적인 효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회 개최 국가들은 마스터즈대회 참가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마스터즈대회의 경우 참가자 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자비로 참석하는 만큼 지역 내 관광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서다. 올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대회에는 수영동호인 등 1만여명이 마스터즈 대회에 참석하면서 대회 기간 중 호텔 룸이 바닥이 날 정도다.

하지만, 수영종목에 대한 인기가 높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대륙, 미주 등지에서 광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조직위는 마스터즈 대회 참가자 유치를 위한 노력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접근성이 좋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유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유럽과 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실행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부다페스트=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빛가람 시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칭식이 20일 오전 나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열렸다. 김중식 광주경제부시장, 김갑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강인규 나주시장, 김용수 미래부 2차관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1만 명 중 2년 이상 일할 인력

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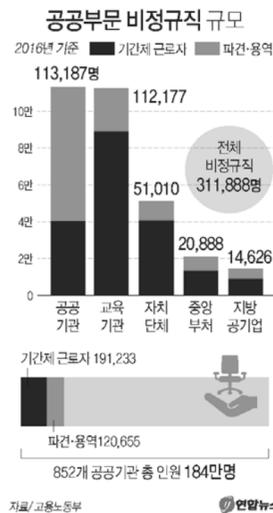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고, 소속업체와 협의 시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직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오늘까지 복측 호응 기다려 입장 발표”

국방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복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오늘까지 복측의 호응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오후 6시께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복측의 반응은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북한의 무응답이 계속될 경우 국방부는 21일 오전 중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분계

선(MDL) 일대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며 회담 날짜를 21일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하루 전인 이날까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여론 기만행위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병력 50만·군 복무 단축’ 해법은?

국방부 “의경·대체인력 등 조정해야”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력 50만명 수준으로 감축과 병사 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추진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이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선,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데 있어 우리 사회의 출산율 저하

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 20세 남자 인구가 35만명 수준이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자

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병력 50만명 시대’를 위해서는 병역법에 따라 지원되는 대체·전환복무 인력의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가용자원을 경찰이나 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대체·전환복무 제도이다.

전환복무 인력은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원 등의 제복을 입고 복무한다. 대체복무 인력은 산업기능·전문연구원 요원, 공중보건요원, 사회복지요원 등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한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제가 계속 존속할 경우 상비병력 규모가 2024년 49만 3000명, 2025년 46만8000명 등 50만명 수준을 밑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병력 50만명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모병제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증가와 국방예산 및 적정 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가건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가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토지/기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산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야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